

8 · 15 광복절

光復節

광복절(光復節)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여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은 194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연합군측에 유리하게 되어, 그해 11월말에 미국 · 영국 · 중화민국 3국은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였고, 8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 소비에트 연방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드디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한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오랜 투쟁을 통한 민족의 극복에 의해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또한 광복회원 및 동반 가족에게는 광복절을 전후하여 전국의 철도 ·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고궁 및 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3년 이후, 우익단체인 뉴라이트에 의해서 현재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 정부가 수립되어 건국되었다가 1948년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년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광복회는 8.15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어 우리민족의 독립정신을 폄훼하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하는 한편, 민족정기 선양에 최선을 다 해 나아가고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 대통령의 경축사에 앞서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한다.